

한국어 격조사의 언어유형적 재분류

- 러시아어 ‘격어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니아(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 |
| 2.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의 유형론적
분류 | 4. 결론 |

1. 서론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 소박한 궁금증을 가져왔다. 과연 인류는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왜 서로 다르며,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정도의 의문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수많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서로 관련된 언어의 변종을 개별 언어로 분리시켜야 할 것인지 혹은 같은 언어의 방언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의 친근 관계나 계통을 밝히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은 세계의 언어를 분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어 분류는 크게 유형론적(typological) 분류와 계통론적(genealogical)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유형론적 분류는 언어의 외형적인 공통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언어들을 크게 굴절어(屈折語, inflectional language),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on language),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로 나누는 방법이며, 계통론적 분류는 언어들을 내부적으로 관찰·분석하여 다른 언어와 비교함으로써 언어들의 친연 관계를 밝혀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유형론적 분류 방법에는 큰 구조적 특징으로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 이외에 언어의 한 면만을 주목하여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음소의 면을 주목하여 자음 언어, 모음 언어, 자모음(字母音) 언어로, 음절에 주목하여 개음절어와 폐음절어로, 성조에 주목하여 성조 언어와 비성조 언어로 수식의 면에 주목하여 ‘수식어-피수식어’ 언어, ‘피수식어-수식어’ 언어 및 ‘수식어-피수식어-지시어’ 언어로, 관계어의 위치에 따라 전치(前置) 언어와 후치(後置) 언어로, 문장의 어순에 주목하여 SOV 언어와 SVO 언어 및 VSO, VOS, OVS 언어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의 격에 주목하여 한국어의 격조사를 유형론적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격(case)은 형태, 의미, 기능이라는 문법적 기준 가운데 어떠한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격은 종속적 명사가 그 머리어와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그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이다. 전통적으로 이 용어는 굴절 표시를 말하고, 전형적으로 격은 절 층위에서 명사의 동사에 대한 관련성을, 혹은 구 층위에서 명사의 전치사, 후치사나 다른 명사에 대한 관련성을 표시한다.¹⁾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은 명사구에 형태적 격 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실현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격 표지를 ‘격조사’라 부르고, 러시아어에

1) Case(1994), Bany J. Bla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격(1998 3), 고석주 역, 한신문화사)
 2) 한국어의 격조사에 대한 논의는 격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격을 나타내는 형태를 하나의 단위인 ‘조사’로 처리하느냐 혹은 단어의 일부인 어미나 접미사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어의 굴절체계 존재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서는 ‘격어미’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격어미’와 교착어인 한국어의 ‘격조사’를 비교하여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언어를 대비·고찰하여 두 언어의 격 표지를 언어유형론³⁾(linguistic typology)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격의 유형론적 분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이 유형론적으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를 같은 범주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3장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주격과 목적격을 중심으로 어떤 격 표지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두 언어의 격 표지를 언어유형론적으로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의 유형론적 분류

2.1. 격 언어

전통적인 격 정의에 따르면, 명시적인 형태적 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격’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격을 나타내는 형태를 ‘격조사’라 부르기로 한다. 이는 격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어의 ‘격어미’와 구분하여 기술하기 용이하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 3) Lindsay(1997: 8-21)에서는 언어유형론을 ‘공유하는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언어나 언어 성분의 분류’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가 들어 있다고 한다.

명제 1: 유형론은 범-언어적 비교를 이용한다.

명제 2: 유형론적 접근은 언어의 구성 부분이나 언어 전체의 분류를 포함한다.

명제 3: 유형론은 언어의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은 격 표지를 기준으로 하며, 격 표지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는 격 언어(case language)로, 형태적인 격 표지보다는 어순 등으로 격을 표시하는 언어는 무격언어(caseless language)⁴⁾로 분류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단어들 간의 관계가 형태적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격 언어에 해당한다.

- | | | |
|-----|-----|-----------------------|
| (1) | 가. | 철수가 영화를 사랑한다. |
| | 가’. | 영화를 철수가 사랑한다. |
| | 가”. | 사랑한다, 철수가 영화를. |
| | 나. | Андрей любит Марию. |
| | 나’. | Марию Андрей любит. |
| | 나”. | любит, Марию Андрей . |

예문 (1가)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주체는 ‘철수’로, 주격조사 ‘가’가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한다. (1가) ‘영화를 철수가 사랑한다.’나 (1가”)의 ‘사랑한다, 철수가 영화를’처럼 어순이 변하여도 사랑하는 주체가 ‘철수’에서 ‘영화’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어에는 격을 나타내주는 격 표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어 역시 격을 나타내 주는 표지가 있어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달라져도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1나)에서 Мария를 사랑하는 주체는 Андрей 로, 러시아어의 경우 주격은 ∅(무표지)로 실현되고, 목적어 ‘Марию’는 원래 ‘Мария’로 어미 ‘-я’가 ‘-ю’로

4) 격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형태적 표지가 없는 언어를 ‘격패턴언어(case pattern language)’라 부르기도 한다.

변화되어 목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는 ‘Tom loves Mary’를 ‘Mary loves Tom.’로 어순을 바꾸면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이 변화되는 영어와 구별된다.

2.2. 대격 언어

개별언어의 격은 주로 (2)의 핵심성분(core participants)을 통해 분석한다 (Andrew A. 1985; Dixon R. M. W. 1994).⁵⁾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격을 분석하는 이유는 언어마다 어순과 격 표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핵심 성분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핵심성분(Core participants)

S : intransitive Subject

A : transitive subject (Agent)

O : transitive Object (혹은 P=Patient)

이 핵심성분들은 언어에 따라 부분적으로 같은 표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별도의 표지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핵심성분의 격 표시 방법에 따라 개별언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격 표시 체계에 따라 대격 언어(accusative language), 능격 언어(ergative language), 삼립 언어(tripartite language), 중립 언어(neutral language)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 성분들의 격 표시 체계에 따른 네 가지 언어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3)와 같다.

5) 허성태(2007: 87) 재인용.

(3) 핵심성분들의 격 표지 형식에 따른 4가지 언어유형⁶⁾

a. 대격 언어

- S, A가 같은 형태로 나타남.
- S, A = 주격(nominative), O = 대격(accusative)
- 주격이 무표적이고(unmarked), 대격이 유표적임(marked)

b. 능격 언어

- S, O가 같은 형태로 나타남.
- S, O = 절대격(absolute), A = 능격(ergative)
- 절대격이 무표적이고(unmarked), 능격이 유표적임(marked)

c. 삼립형 언어

- S, A, O가 모두 다른 표지로 나타남.
- 아주 드물게 나타남

d. 중립형 언어

- S, A, O가 모두 같은 표지로 나타남.
- 형태적 격 표지가 모두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음.
- S, A, O가 모두 무표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격 언어는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같은 격 표지인 주격을 취하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다른 격 표지로 대격을 취하는 언어 유형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부분의 언어들은 대격 언어에 속하며, 한국어 역시 대격 언어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6) 송경안(2005: 135) 인용.

- (4) 가. 소녀-가 왔다.
 girl-NOM came
 ‘The girl came.’
- 나. 소녀-가 소년-을 봤다.
 girl-NOM boy-ACC saw
 ‘The girl saw the boy’

(4가)에서 자동사 ‘오다’의 주어인 ‘소녀’는 조사 ‘-가’를 통해 주격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4나)에서 타동사 ‘보다’의 주어인 ‘소녀’도 조사 ‘-가’를 통해 주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또한 (4나)에서 타동사 ‘보다’의 목적어인 ‘소년’은 조사 ‘-을’을 통해 대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사의 주어인 S(소녀)와 타동사의 주어인 A(소녀)는 조사 ‘-가’를 통해 동일하게 주격으로 표시되고, 타동사의 목적어인 O(소년)는 조사 ‘-을’을 통해 대격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러시아어 역시 자동사와 타동사의 주어는 형태적으로 동일한 격 표지를 취하고 타동사의 목적어는 대격 표지를 취하므로 대격 언어라고 할 수 있다. (5가, 나)에서 자동사 ‘спит(자다)’와 타동사 ‘читает(읽다)’의 주어는 동일한 주격 형태를 지니고 ‘книг-у(책을)’는 목적어로서 대격 표지 어미 ‘-y’)를 취하고 있다.

- (5) 가. Он спит. [On spit]⁸⁾
 He-NOM sleep-3SG
 ‘He sleeps.’

7) 한국어 ‘책’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는 ‘книга’이다. ‘книга’는 여성명사로 ‘-a’로 끝나는 여성명사는 ‘-a’가 ‘-y’로 변화하여 대격을 표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3장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나.	Он	читает	книг-у.
	[On	čítajit	knigu]
	He-NOM	read-3SG	book-ACC
	'He reads a book.'		

러시아어에서 타동사의 목적어인 O가 고유의 대격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여성명사와 여성형 대명사, 여성형 형용사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남성 및 중성 단수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 특별한 격 표시가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격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서 격 표시만으로는 격을 알 수가 없다.

(6) 가.	Профессор	читает	книг-у.
	[Professor	čítajit	knigu]
	Professor-NOM	read-3SG	book-ACC
	'Professor reads a book.'		

나.	Она	любит	эт-ого	професор-а.
	[Ona	l'ubit	etogo	professora]
	She-NOM	love-3SG	this-ACC	professor-ACC
	'She loves this professor'			

다.	Эта книга	професор-а	Павлов-а.
	[Eta kniga	professora	Pavlova]
	This book	professor-GEN	Pavlov-GEN
	'This is a book of Professor Pavlov.'		

8) 예문은 유형론의 특성을 살리고 개별 언어 연구자들과 일반 언어학자들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틴문자로 전사하여 제시한다. 러시아어 음가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전사체계를 따랐다. 러시아어 예문은 강덕수(1990),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을 참고하여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6)를 살펴보면 (6가)에서 -∅(무표지)로 주격을 실현한 Профессор(교수)는 (6나)에서는 Профессор에 대격 표지인 -a가 첨가되어 профессора의 형태로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6다)의 профессора는 생격⁹⁾임에도 (6나)문장에서 대격으로 실현되고 있는 ‘профессора’와 형태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러시아어에서 남성단수명사이자 유정명사의 대격과 생격¹⁰⁾은 같은 격 표지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반면 (7)의 예를 살펴보면 남성단수명사이자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유정명사와 다르게 격이 실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 (7) 가. Профессор читает журнал.
 [Professor čítajít žŭrnal]
 Professor-NOM read-3SG magazine-ACC
 ‘Professor reads a magazine.’
- 나. Этот журнал интересно.
 [Etot žŭrnal int’í r’esnŭ]
 This magazine-NOM interesting
 ‘This magazine is interesting.’

9) 러시아어는 보통 형태상으로 6격, 즉 주격(nominative), 생격(genitive), 여격(dative), 대격(accusative), 조격(instrumental), 전치격(prepositional)으로 구분한다. 러시아어 격 명칭은 편의상 러시아어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0) 성과 수에 따른 생격 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수		복수	
남성	∅	-a	студента	-ов	студентов
	-ь	-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ей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й		музея	-ев	музеев
중성	-о	-а	слова	탈락	слов
	-е	-я	моря	-ей	морей

남성단수명사 журнал의 경우, 주격과 대격이 -∅(무표지)로 격이 실현되어 남성단수명사라 할지라도 목적어가 유정물일 때와 무정물일 때는 다른 격 표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8가)처럼 -ь(연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 역시 대격표지가 -∅어미를 취하고, 복수명사의 경우에는 남성명사, 중성명사, 여성명사 모두 유정물일 때는 생격과 동일한 형태이며 무정물일 때는 주격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8) 가. Профессор открывает дверь.
 [Professor otkribaet dv'er']
 Professor-NOM open-3SG door-ACC
 'Professor open the door.'

나. Эта дверь большая.
 [Eta dv'er' bolščaja]
 This door-NOM big
 'This door is big.'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어는 형태상으로 주격과 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대격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타동사의 목적어인 O가 고유의 대격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a / -я형의 여성명사와 이와 관계하는 여성형 대명사 그리고 여성형 형용사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적인 대격 언어라 할 수 있다.

	-ие		здания	-ий	зданий
여성	-а	-ы	сестры		сёстры
	-я	-и	книги	탈락	книг
			недели	-ий	недель
	аудитори	аудиторий			
-ь		тетради	-ей	тетрадей	

이상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의 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격 표지가 확실한 격 언어이며, S와 A가 동일한 형태이면서 타동사의 목적어인 O가 대격을 취하는 대격 언어임도 확인하였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대격언어로 같은 범주에서 격 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타당성을 발견하였다. 3장에서는 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

이 장에서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기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주격, 목적격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격조사’와 러시아어의 ‘격어미’를 비교하고자 한다.¹¹⁾ 또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 실현 양상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3.1. 주격 표지

한국어의 주격은 대표적으로 조사 ‘이/가’에 의해서 표시된다. 자음으로 된 체언 뒤에는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가’가 사용되며 주어가 존칭명사일 때는 ‘이/가’ 대신 ‘께서’가 쓰인다. 단체나 기관이 문장의 주어일 때는 ‘에서’가, 인수일 때는 ‘서’¹²⁾가 쓰인다. 구체적인 예는 (8)을

11) 문법적 격에는 전통적으로 주격과 대격 그리고 종종 소유격이 포함되고 여격과 능격이 포함되기도 한다.

12) 이관규(2004)에서는 ‘그들 둘이서 갔다’라는 문장에서 ‘서’는 선행하는 ‘이’의 성격에 따라 ‘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를 특이한 조사라고 하였다. ‘서’를 주격조사라 한다면 ‘이’는 인칭 접미사이고, ‘이’가 주격조사라면 ‘서’는 보조조사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 역시 주격을 표시하는 자리에 나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9) 가. 영철이 온다.
- 나. 영이가 갔다.
- 다. 선생님께서 오신다.
- 라.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 마. 혼자서 영국에 간다.

(8가)에서 자음으로 된 체언 ‘영철’ 뒤에는 ‘-이’가 주격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8나)에서는 모음으로 된 체언 ‘영이’ 뒤에 ‘-가’가 주격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8가)처럼 자음으로 된 체언이 고유명사일 경우, ‘영철이가 온다.’처럼 격 표지가 이중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8다)에서는 주어의 자리에 존칭명사인 ‘선생님’이 와서 주격 표지가 ‘-께서’로 실현되고 있으며, (8라)에서는 ‘학교’가 문장의 주어로 쓰여 ‘-에서’가 사용되었다. (8라)의 ‘-에서’는 ‘-가’로 호환이 가능하다. (8마)는 주어가 인수인 경우로 주격 표지가 ‘-서’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어의 주격은 단수일 때는 특별한 격 표지가 보이지 않고, 단어 원형 모습 그대로 쓰이지만 복수일 때는 ‘-Ы’가 쓰인다.¹³⁾

러시아어의 남성명사는 ‘студент(학생), преподаватель(선생님), музей(박물관)’처럼 명사의 끝이 ‘-Ø, -Ъ, -Й’의 형태를 취하며 각각의 복수형은 ‘студент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узеи’로 ‘-Ы’나 ‘-И’로 형태가 변화된다. 여성명사는 ‘книга(책), неделя(주), аудитория(교실), тетрадь(공책)’처럼 ‘-а, -я, -ия, -Ь’로 끝나는 명사이며 복수형은 남성명사와 동일하게 ‘-Ы’나

타나므로 주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로 인정하기로 한다.

- 13) 러시아어의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구별되어 있고,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뚜렷해 복수형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명사는 성, 수, 격에 따른 변화형을 가지게 된다.

‘-и’가 쓰이지만 ‘-а’로 끝나는 명사일 때만 ‘-ь’로 변화한다. ‘-а’로 끝나는 명사일지라도 книга처럼 ‘-а’앞에 선행하는 자음이 ‘-г-’일 때에는 ‘-и’로 변화한다. 중성명사는 ‘слово(단어), море(바다), здание(건물)’처럼 단어의 어미가 ‘-о, -е, -ие’이다. 각각의 단어들의 복수형은 ‘слова, моря, здания’로 중성명사의 복수형은 ‘-а’ 또는 ‘-я’의 형태를 취하여 여성단수명사와 형태상으로 구분이 어렵다. 성과 수에 따른 명사의 어미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성		
		남성	중성	여성
수	단수	∅ -й -ь	-о -е -ие	-а -я -ия -ь
	복수	-ьи -и	-а -я	-ьи -и

예문을 통해 문장 안에서 실현되는 격어미를 살펴보면,

(10) 가. 날씨가 좋다.

Погода хорошая. [Pogoda horoshaja]
weather ∅ good

나. 학생이 수영하고 있다.

Студент плавает. [Student plavaet]
Student ∅ swimming

다. 학생들이 수영하고 있다.

Студенты плавают. [Studenti plavajut]
Students swimming

(9가)의 ‘Погода’는 한국어의 ‘날씨’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로 ‘-а’로

끝나는 여성단수명사이며, (9나)의 ‘Студент’는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단수이다.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어에서 주어가 단수일 때는 특별한 격 표지를 취하지 않지만 (9다)처럼 복수일 때는 ‘-Ы’가 붙는다. 이 경우, ‘-Ы’를 격 표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3.2. 목적격 표지

한국어의 목적격은 선행하는 명사가 후행하는 타동사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을/를’에 의해서 표현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을’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를’이 쓰인다.

- (11) 가. 나는 책을 구입했다.
나. 학생이 편지를 쓴다.

한국어의 목적격에 대응되는 러시아어의 격은 대격이다. 대격은 보통 긍정문에서 타동사가 표현하는 행위의 대상, 즉 직접 목적어를 가리킨다.

- (12) 가. 나는 책을 구입했다.

Я	купил	книгу.	[Ja kupil knigu]
I	bought	book-Acc	

- 나. 나는 책들을 구입했다.

Я	купила	книги.	[Ja kupil knigi]
I	bought	books-ACC	

다. 학생이 편지를 쓴다.

Студент	пишет	письмо.	[Student pishet pis'mo]
Student∅	writes	a letter-∅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에서 대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의 형태는 다소 복잡하다. 남성명사가 무정명사인 경우와 여성명사 중 '-ь'으로 끝나는 명사인 경우, 중성명사는 모두 주격과 동일한 형태이며, 남성명사가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생격과 동일하다.

(11가)의 'Я купил книгу.'는 여성명사 'книга'의 '-а'가 대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 '-у'로 변화하였다. 반면 (11다)의 'Студент пишет письмо.'의 목적어인 'письмо'는 주격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가 없다.

러시아어의 대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단수		복수
남성	∅	무정명사일 때, 주격과 동일 유정명사일 때, 생격과 동일	무정명사일 때, 주격과 동일 유정명사일 때, 생격과 동일
	-ь		
	-ш		
중성	-о	주격과 동일	
	-е		
	-ие		
여성	-а	-у	
	-я	-ю	
	-ия		
	-ь	주격과 동일	

3.3.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 표지 실현 양상

지금까지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동일하게 격 표지로 격이 실현되고,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격 언어	주격			목적격				
	기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한 국 어	일반 명사	-이	-가	-을	-를			
	존칭 명사	-께서						
러 시 아 어		남 성	중 성	여 성	남 성	중 성	여 성	
	단 수	∅	-o	-a	주격 (무정 명사)	주 격	-a	-y
		-я	-e	-я			-я	-ю
		-ь	-ие	-ия			-ия	
복 수	-ы -и	-а -я	-ы -и	무정명사일 때, 유정명사일 때,	주격과 생격과	동일 동일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 표지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가 동일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학생’과 러시아어 ‘студент’(한국어로 학생)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студент’은 남성 단수 명사이다. 러시아어에서 남성 단수 명사는 주격으로 실현될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의 변화가 없다. 남성 단수 명사의 주격형의 실현이 형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형태소)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어의 교착어적 성격을 규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격조사	단수		복수	
	어미	형태	어미	형태
주격	∅	студент	-Ы	студенты
생격	-а	студента	-ОВ	студентов
여격	-у	студенту	-АМ	студентам
대격	-а	студента	-ОВ	студентов
조격	-ОМ	студентом	-АМИ	студентами
전치격	-е	студенте	-АХ	студентах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студент’는 격에 따라 어미가 첨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학생’이 ‘학생이’, ‘학생의’, ‘학생에게’, ‘학생을’, ‘학생과’, ‘학생에 대해’처럼 조사와 함께 쓰여 문장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어의 ‘студент’가 보이지 않는 ∅(공형태소)를 설정하고 ∅(공형태소)가 다른 어미로 굴절된다고 한다면 한국어의 주격 ‘학생’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격 표지 실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학생+이’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다면 ‘학생’은 ‘학생’이라는 단어의 ‘어미’가 ‘굴절’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 표지 실현 양상을 알아보았다. 이제 문장 내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격 표지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통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가 동일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3) 가. 내가 책을 읽는다.

나. Я читает книгу. [Ja čitajit knigu]

예문 (12)에서처럼 한국어는 인칭대명사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을 때 ‘나, 저, 너’가 ‘내, 제, 네’로 바뀌지만 러시아어는 인칭대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쓰여 주격으로 실현될 때에는 특별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4) 가. 그는 나를 사랑한다.

나. Он любит меня. [On l'ubit m'ln'a]

반면 (13가)처럼 인칭대명사가 목적어의 자리에 쓰일 때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격을 나타낼 뿐 ‘나, 저, 너’의 형태 변화가 없지만 (13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어에서는 ‘меня’로 그 형태의 변화가 심하다.¹⁴⁾ 예외적 현상이긴 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인칭대명사처럼 격이나 수에 따라 형태 변화가 심한 명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друг(친구, 남성단수명사)의 복수형은 друг’에 복수 주격 어미 ‘-и’가 붙은 ‘други’가 아닌 ‘друзья’이다.

구어체에서 한국어의 경우 러시아어와 다르게 격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격조사 생략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어는 ‘격어미’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다음의 예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격 표지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들이다.

14) 러시아어 인칭대명사의 주격과 대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수		복수	
	주격	대격	주격	대격
1인칭	Я	меня	Мы	нас
2인칭	Ты	тебя	Вы	вас
3인칭	Он	его	Они	их
	Она	её		

(15) 가. 나, 책 읽는다.

나. *Я читает книгу-а.

한국어에는 격조사 생략 현상뿐만 아니라 ‘철수가 키가 크다.’, ‘철수가 영화를 책을 읽다.’ 같은 이중주어 구문이나 이중목적어 구문이 나타난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어미가 생략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격 어미가 쓰여 그러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4. 결론

본고의 논의는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격어미’와 교착어인 한국어의 ‘격조사’를 비교하여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언어를 대비·고찰하여 두 언어의 격 표지를 언어유형론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모두 격 표지를 사용하는 격 언어이며,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같은 격 표지를 취하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다른 격 표지를 취하는 대격 언어이다. 즉, 격을 실현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언어를 분류했을 때와 핵심성분의 격 표시 방법에 따라 개별 언어를 분류했을 때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동일 범주에 속한다. 이에 각 언어의 격을 표현하는 방법인 ‘격조사’와 ‘격어미’ 또한 동일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논의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어 명사의 어형 변화를 나타내는 격어미를 한국어의 조사에 대응시킬 수 있다 해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러시아어의 명사는 성(性)이 존재하여 성마다 다른 격 표지가 실

현되며, 단수와 복수의 격 표지도 다르지만, 한국어의 명사에는 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명사에 동일한 격 표지가 실현되고 단수와 복수의 격 표지 또한 동일하다. 반면 한국어의 주격에는 격 표지의 높임형(-께서)이 존재하지만 러시아어의 격 표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러시아어에서는 예외적 격 표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국어에는 특정 단어에서만 출현하는 격 표지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한국어의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며, 이중주어 구문과 이중목적어 구문처럼 하나의 격 표지가 문장 내에서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러시아어의 격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문장 내에서 중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러시아어의 남성명사를 러시아어 명사의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러시아어의 ‘격어미’의 교착어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러시아어의 남성명사의 경우 격변화를 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격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다소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언어의 격 표지인 ‘격조사’와 ‘격어미’는 동일 범주에 속할 수 없지만 유형론적으로나 계통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언어의 비교·대조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다.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대비·고찰하여 두 언어의 격 표지를 언어유형론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각각의 언어에서 격을 표현하는 방법인 ‘격조사’와 ‘격어미’가 동일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논의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격어미와 한국어의 조사가 서로 대응된다고 하여도 두 언어의

격 표지가 동일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두 언어의 격 표지는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론적으로나 계통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언어를 비교·대조하여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다.

주제어: 격, 러시아어의 격어미, 한국어의 격조사, 언어유형론

<참고문헌>

- 강덕수(1990),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1, 진명출판사.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격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권재일(1991), 「한국어 문법범주에 대한 언어유형론적인 연구」, 『언어학』 No. 13, 한국언어학회.
- 김동소(2005), 『한국어 특질론』, 정림사.
- 김성완(2008), 「러시아어 ‘격 어미’와 한국어 ‘격조사’의 비교 및 분석」, 『比較文化研究』 vol.12 No.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남윤진(2000), 『현대 국어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월인.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vol. -No. 282., 한글학회.
- 송경안(2005),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vol. 41.,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 송경안·이기갑 외(2008), 『언어유형론』, 도서출판월인.
- 이관규(2004),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월인.
- 이명자(2007), 『러시아어의 구조』, 보고서.
- 임홍빈(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vol. 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채 완(2006), 「국어의 격과 조사」, 『우리말 글』 vol. 37., 우리말글학회.
- 허성태(200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의 격」, 『동유럽발칸학』 vol. 9. No. 2., 한국동유럽발칸학회.
- Blake, Barry J.(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격(1998), 고석주 역, 한신문화사)
- Whaley, Lindsay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언어 유형론(2010), 김기혁 역, 소통)

〈Abstract〉

Re-Classification of Linguistic Typology of morphological Preposition

Cho, naya

This article explored if the morphological marker of the two languages in linguistic topology by comparing 'morphological suffix' of Russian as an inflectional language, and 'that' of Korean as an agglutinative language, and considering the two languages having no relations in system and typology can be combined together.

Korean and Russian are morphological languages using morphological marker, the subject of intransitive verb and that of transitive verb take on same morphological marker, and the objective of transitive verb takes on different morphological mark, which is a dative language. Hereby, the argument was developed under the hypothesis that 'morphological preposition' and 'morphological ending' as a means of expressing the morphological of each language may belong to the same category.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various limites though morphological ending indicating the word form of Russian nouns can be corresponded to the morphological of Korean language.

Eventually, the morphological marker of the two languages can not belong to same category, but it is significant that attempting to seek new forms of morphological marker through comparison and contrast of the two languages

having no relations in topology and system.

Key words: morphological marker, Russian's morphological ending,
Korean morphological preposition, and linguistic
typology

조나야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itsmeny@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